

# 광주 불교공동모금회 첫 발 디디다

## 11월 3일 빛고을나눔나무 창립대회

광주불교 활성화를 위한 불교지원단체가 설립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영광, 중심사 주지)는 11월 3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부설단체인 '빛고을 나눔나무' 창립식을 병행하고 불교단체 지원에 나섰다.

광주지역 불교공동모금회 성격을 띠는 빛고을 나눔나무는 광주지역 불교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불교단체에서 진행하는 목적사업과 부처님오신날 봉축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이다.

특히 해마다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 광주지역 불교단체 30여 곳에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불교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립식에는 광주지역 사찰 50여 곳의 주지스님과 백양사 주지 진우스님을 비롯한 광주불교방송 이민수 사장 등 불교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봉행됐다.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영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해방 후 60여 년 동안 호남불교는 침체와 약화된 포교환경에 처했다. 또한 다른 종교의 교세확장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이면서 제3의 종교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며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만들어

진 불교환경은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포교의 환경과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참여 환경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사찰을 다시 규합하고, 불교단체의 활성화와 불교의 다양한 지역 사회 참여와 신도들의 전법구현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광 스님은 "오늘 창립하는 빛고을 나눔나무는 이러한 불교단체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불교인프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30여 불교단체 5000만원 지원 광주지역 50여 사찰 회원으로

재원 마련에 대해 빛고을 나눔나무 상임이사를 맡은 혜공 스님(성거사)은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지원금을 나눔활동에 사용 할 것이며, 사찰 및 개인후원을 추가로 모집해 다양한 불교활동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이미 2013년 12월 독거노인 겨울 난방지원사업을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2014년 봉축행사도 1500만원을 13개 불교단체 공모사업에 지



11월 3일 빛고을나눔나무 창립대회에 참여한 광주지역 불자들이 불법홍포를 서원하며 나눔나무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정관과 이사회, 운영 계획안이 통과됐다. 초대이사장에는 단원직으로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영광 스님이 선임됐으며,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회에는 보승 스님(세심정사), 명신 스님(연화사), 혜공 스님(성거사), 시각 스님(만덕사), 도요 스님(원각사), 통초 스님(정안사), 혜월 스님(한마음선원)등이 선출됐다. 빛고을 나눔나무는 출가자 이사에 이어 11월중에 재가자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영광)는 이날 불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활동보

고연합회의 현황 등을 공개했다.

활동보고서에는 1년 연혁, 봉축행사,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부설단체 현황, 발행잡지 현황, 대외협력사업, 신원단체 간담회, 2014년 재정결산, 2015년 예산안 등이 포함되었으며, 장기적 과제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불교계 대책'과 '전통등 만들기 특별위원회' 설립 등이 실렸다.

광주불교연합회는 빛고을나눔나무와 공동으로 12월 19일 오후 7시 사찰과 단체, 기관장, 후원자 등이 참여하는 '2014광주 불교인의 밤' 행사를 신양파크 호텔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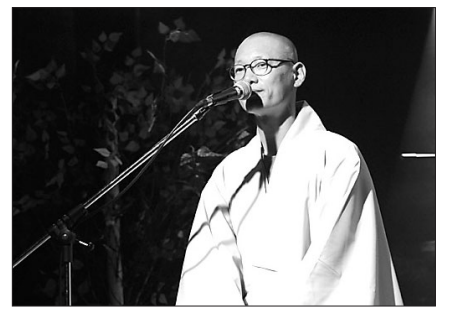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찬불 가수 수안스님, 첫 콘서트 진행

노래하며 포교하는 수안 스님(백양사 포교국장)이 첫 개인 콘서트를 개최했다. 수안 스님은 지난 10월 31일 광주 동구 보헤미안 공연장에서 첫 콘서트 '길을 떠나며'를 진행했다.

이날 공연에서 수안 스님은 그랬구나, 길을 떠나며, 비 내리는 산사, 언제나 어디에나, 식은 차를 마신다 등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10여곡을 선보였다.

수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했다. 노래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을 만나 세상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며, "제가 노래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힘든 세상일을 겪으면서 잃어버려서는 안되



는 자기 자신의 내면 가치를 잘 관찰하고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안 스님은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백양사 포교국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진행자로도 활동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아름다운가게서 열린의사회 무료진료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광장 대원)은 11월 2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농어촌지역 저소득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열린의사회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아름다운가게의 후원으로 열린의사회가 진행한 이번 행사는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와 진료를 제공했다.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 치과, 약 처방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열린의사회 의사와 간호사 등 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접수에서 진료, 처방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복지관장 대원 스



님은 "올해 3번째 고창을 찾아주시는 열린의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무료 진료를 통해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완도 신흥사 '제8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가 11월 5일 제8회 장보고청소년백일장대회(이하 장보고백일장)를 개최했다.

신흥사가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전남도내 초·중·고등학생 4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초등부(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참가자를 구분하고 시와 산문, 그림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3년째 제정된 전남도지사·전남도교육감상에 이어 올해 전남도의회 의장상이 신규로 제정돼 전남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예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에는 최우수상 시 부문 정윤규 군(완도중 1, 전라남도교육감상), 산문 부문 박주선 양(완도여중 1, 전라남도의회 의장상), 그림 부문 추호림 군(완도수고 2, 전라남도지사상)의 작품이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통문화가 숨쉬는 사찰에서 한국을 빛낸 장보고의 기상을 느낄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 신흥사 장보고 아카데미는 내년에는 교육부 장관상 제정과 대상도 전국 청소년으로 확대해 전국행사로 규모를 격상시킬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군산 상주사, 관세음보살 점안법회 봉행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는 11월 5일 관음전의 6관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상주사는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흥천사 주지 법희 스님, 보현사 주지 의종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진회안 군산시의장 지역 기관장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전북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작법에 이어 현조 스님을 증명법사로 관음전 6관음보살에 대한 점안과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이 이어졌다.

도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상주사가 일상생활에 지친 모든 분들의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이 이어졌으며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쓴 '붓다로 살자' 휘호가 전달됐으며 오후에는 생전제수제가 봉행됐다.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음신앙을

조동제 전북지사장

## 기허당 영규 대사 추모제 및 산사음악회

공주 감사(주지 화봉)는 11월 1일 기허당 영규 대사 순교 422주년을 기념하는 추모제를 봉행했다.

추모제에는 감사 주지 화봉 스님, 봉곡사 주지 자암 스님, 동불사 주지 각성 스님을 비롯해 조명숙 포교사단장, 오시덕 공주시장, 윤석우 충남도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화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갑사에서 출가한 기허당 영규 스님은 수행자의 몸으로 왜란에 분연히 일



모하는 자리를 병행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추모제에 이어 흥서범, 유익종밴드, 이태원, 이우진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열렸다.

노덕현 기자

## 완주 화암사 괘불, 등록문화재 지정

전북 완주군은 11월 3일 완주 화암사 '괘불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625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괘불은 근대기 불화에 수용된 서양 화법을 수용해 입체감 있는 표현뿐 아니

라 수채화 기법에 가까운 실채법 등을 받아들여 불교 회화적 가치가 크다. 화암사의 극락전과 우화루도 각각 국보와 보물로 등록돼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지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경기도 화성시 떡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